

와카사의 장원

개요

12세기부터 16세기 중반에 걸쳐 와카사 지역에는 많은 장원(큰 신사 불각, 공가, 무가에 주어진 부분적으로 비과세인 사유 농지)이 있었습니다. 그 소유자는 보통 옛 도읍인 나라와 교토에 거점을 두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장원은 지역 대표자가 관리했고, 세금 대신 정해진 양의 식재료를 보내기 위해 농민은 충분한 식재료를 생산해야만 했습니다. 장원과 지주와의 연결고리는 수도에서 와카사로 질 높은 공예품과 종교적 전통, 축제 문화를 전하는 경로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상세 정보

장원과 그 관리

와카사 지역은 예로부터 바다와 가까운 비옥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어 장원을 갖기에 매우 매력적인 곳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과거 일본 땅의 대부분은 천황의 소유지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세금을 조정에 납부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장원은 중앙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의 일부에서 면제되었고, 보통은 멀리 사는 소유자를 대신해 지역에 사는 다이칸이라는 대표자가 이곳을 관리했습니다. 그 땅에서 일하는 농민들은 조정이 아닌 장원의 소유자에게 쌀이나 그 외 물건을 보냈습니다.

소유자와의 연결고리를 통한 문화교류

12세기 후반부터 15세기 전반에 걸쳐 와카사에는 번성한 장원이 많았습니다. 그 소유자들은 매우 영향력 있는 종교시설이나 궁중 귀족이었습니다. 역사적 기록에 의하면 교토의 도지 절(東寺)와 산주산켄도(三十三間堂), 나라의 도다이시 절(東大寺)와 가스가타이샤(春日大社), 천황의 혈통인 후시미노미야(伏見宮) 가문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연결고리를 통해 수도 문화의 여러 측면이 불상과 종교적 전통, 예술품 등의 형태로 장원에 전해졌습니다. 와카사 지역에서 행해지는 예능의 대표적인 예로는 봄 축제 때 신들에게 봉납하는 덴가쿠라는 민족 예능과 오우노마이를 들 수 있습니다. 지역 신사에서 보존하고 있는 많은 덴가쿠와 오우노마이 전통은 원래 장원 땅의 신들에게 바치던 것이었습니다.

장원제도의 쇠퇴

15세기 중반부터 장원제도는 쇠퇴하기 시작하였고, 각 무가 다이묘가 영지에 대한 지배를 강화하며, 국가가 전국시대(1467년~1615년)에 돌입함과 동시에 서서히 소멸되었습니다. 그러나 장원의 흔적은 과거 장원의 일부였던 지역이나 지역의 이름으로 현재의 와카사 지역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전시품

이 코너에서는 과거 와카사 지역에 있던 장원 관련 물건이나 역사적 문서의 복제 등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가마쿠라 막부의 창설자인 미나모토노 요리토모(源頼朝, 1147년~1199년)가 보낸 편지는 니시즈 장원을 교토 진고지의 소유물로 인정하고, 장원의 관리자들에게 요리토모를 거역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1265년 와카사 지역의 토지 소유권 정보를 담은 14세기 사본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전시 중 하나는 교토의 도지 절에 속해 있던 다라 장원에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1461년의 것으로 추정되는 지도에는 농민들 사이에서 토지가 어떻게 분할되고, 어떤 관개(논밭에 물을 공급하는 작업) 시스템이 존재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장원 주민들이 도지에 보낸 편지는 장원 관리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떤 조치가 취해졌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편지는 1334년 날짜로 내용이 진실임을 신들에게 맹세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에는 사원에 임명된 관리자에 의한 부당한 취급에 관한 고발이 기재되어 있으며, 신청인은 이름 아래 먹으로 간소한 원형 도장을 찍어 '서명'을 했습니다.